

## 대림산업, 익산에서 하천정비 봉사

대림산업(대표 이해욱·김윤·박찬조)은 전라북도 익산시 여산면 여산천에서 하천 가꾸기 활동을 했다고 4월 26일 발표했다.



행사에는 전북 현장에 근무하는 대림산업 임직원 40여명과 지역주민, 환경단체인 <강 살리기 익산네트워크> 관계자 등 총 100여명이 참석했다.

관계자들은 하천 인근의 쓰레기를 치우고 백일홍 100주, 철쭉 50주를 심었다.

대림산업 관계자는 “여산천은 인근 농지에서 나온 오폐수 유입과 쓰레기 무단투기 등으로 오염이 심각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”고 밝혔다.

<화학저널 2013/04/26>